

미선나무 특성과 번식방법

1. 머리말

조경수는 교목(tree), 관목(shrubs), 덩굴식물(climbers)로 구분한다. 목본화훼는 관상의 대상이 꽃 외에 잎, 과실, 수피, 수형, 향기 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특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목은 소나무, 섬잣나무, 주목, 팔손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벗나무 등이며 수고가 15~30m 이상이며, 관목은 1~3m 이하를 말할 수 있다.

향기가 있는 관목으로는 매화, 목련, 서향, 장미, 치자, 라일락, 미선나무 등을 들 수 있으며, 잎에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나무로는 편백, 화백, 향나무류, 월계수, 생강나무, 구상나무 등을 들 수 있다.



농학박사 박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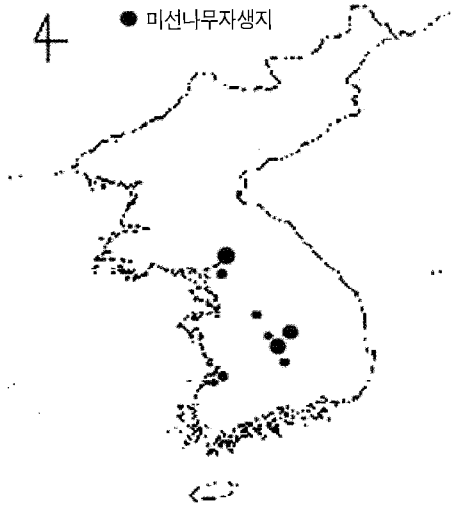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2. 특성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1속1종으로 충북 진천과 괴산 지역의 야산에서 자라는 낙엽활엽 관목으로 높이가 1.5m로 큰 집단을 형성하여 번식한다. 내한성, 내음성은 강하고, 내공해성은 보통이며 토양은 다소 비옥하고 항상 수분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 수형은 우산 모양을 이루며 잎은 대생하고 난형이며 길이 3~8cm, 넓이 0.5~3.0cm로서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어린 가지는 네모가 지며 털이 없고 홍갈색 또는 갈색을 띤다. 잎은 2줄로 마주나고 타원형 달걀꼴이며, 끝은 뾰족하나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꽃은 흰색, 분홍색, 상아색 등으로 3~4월에 피며 은은한 향기가 있다. 꽃은 지난해의 가지 잎겨드랑이에 총상(總狀)꽃차례로 달리는데 잎보다 먼저 핀다. 열매는 시과(翅果)로 끝이 조금 오목부채 모양 같은 날개가 달린다. 열매는 반달같은 2개의 종자를 가지며 9월에 익는다. 뿌리는 약용에 사용하기도 한다.

3. 분포

미선나무는 우리나라 몇 지역에 자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미선나무에 대한 보호, 관리 및 보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생태조사가 많지 않고 미선나무하면 하얀색의 꽃으로 피는 나무로만 생각 한다.



우리나라의 미선나무의 자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충청북도 괴산군(147호, 220호, 221호), 영동(364호), 전북 부안(370호)에서 지정 하였고, 산림청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173호, 환경부 보호양생식물49호로 지정하였다.

4.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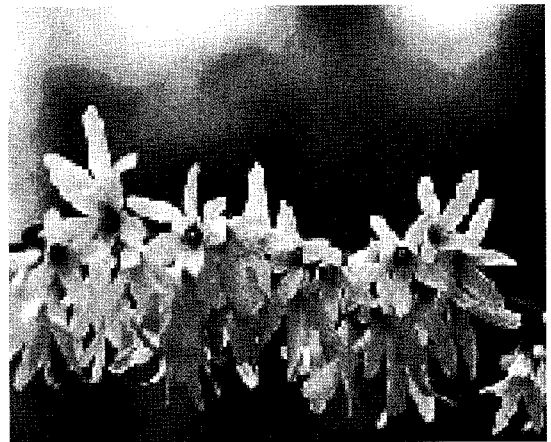
- 미선나무속(*Abeliophyllum* Nakai)
-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 상아미선(*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for. *eburneum* T. Lee)
- 분홍미선(*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 미선나무



▲ 상아미선



▲ 분홍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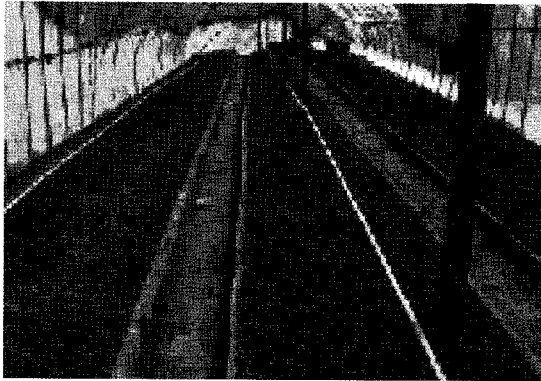
- for. *lilacinum* Nakai)
- 푸른미선(*Abeliophyllum viridicalycium* T. Lee)
- 둥근미선(*Abeliophyllum rotundicarpum* T. Lee)

5. 재배기술 및 기능성

- 번식방법

번식방법은 파종, 포기나누기, 꺾꽂이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삽목방법이다. 파종은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햇빛에 말리지 말고 바로 노천매장 하여 봄에 파종한다.

삽목은 2월에 비닐하우스에서 피트모스+펄라이트+피트모스+모래상토에서 삽수에 루톤을 바르



▲ 삼목상



▲ 이식상



▲ 이식묘



▲ 종자

고 삼목 한다. 발근율은 65~75%로 나타나다.

- 기능성

미선나무의 꽃을 이용한 기호용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차 문화가 발달하여 녹차 생강차, 둥글레차, 인삼차 감잎차 등이 많이 응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선나무의 꽃향기를 이용한 미선차로 개발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은 지역상품화가 될 수 있으며, 건강상품으로도 각광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외국에서는 장미꽃, 레몬 등을 활용하여 목욕탕에 향을 이용한 목욕법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썩탕, 녹차탕 인삼탕 등과 같은 것이 있다. 미선나무도 마찬가지로 꽃을 이용한 목욕법을 개발한다면 사람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원화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꽃의 향기와 매력을 느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맺음말

미선나무의 번식은 자생지 대부분 포복성 줄기에 의한 영양생식을 하므로 보호지역에 토양을 인위적으로 복토하여 포복지가 토양에 접할 수 있게 해주고, 묘목을 증식 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산종인 미선나무를 널리 알리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개나리 보다는 미선나무를 공원 및 가정에 정원수 등으로 많이 보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미선나무가 처음 발견된 후 유럽 및 일본에 건너가 아름다운 정원수로 평가 받고 있으며 관상용으로 정원에 심는 것 외에 꽃꽂이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꽃의 특성 및 번식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알지 못한다. 앞으로 미선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보급을 하여야 될 것이다. 